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구르미 그린 호수” - 세종시의 호수 공원 발전을 위한 탐사 -

2016. 10. 22

김태현, 노정훈, 박소호, 박수진, 박준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구르미 그린 호수”

- 세종시의 호수 공원 발전을 위한 탐사 -

김태현, 노정훈, 박소호, 박수진, 박준수

1. 탐사의 필요성

요즈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신도시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세종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도시 건설을 하였다. 그렇기에 세종시는 수·과학, 인문, 예술 등 학문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최첨단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시는 ‘행복도시’라고도 불리며 주민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도시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 적절하고 편하게 설계되었을까? 우리 학교는 아름답고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교를 설계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발생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학교를 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도시 건설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주민들이 아름답고 편리하다고 느끼며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성, 안전, 복지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요소 중 시민들의 즐거운 생활에 필수적인 여가 시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여가 시설인 ‘세종호수공원’에 직접 탐사를 나서서 호수공원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사람들이 주중이나 주말에 편히 쉬다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여건을 잘 갖추었는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생각하여 구성하였는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것들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여가 시설인 호수공원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생활 시의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호수공원에서 나아가 세종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탐사 과정

가. 1일차 (B코스 및 수상레포츠 체험)

1일차에는 공원의 B코스를 돌며 축제섬, 중앙광장, 관리센터, 세호교, 수상무대섬, 은빛 해변 등의 장소를 살펴보았다.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 되어 세종 호수공원에서 개선할 수 있을 만 한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세종호수공원을 탐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기도 했다. 또 오후에는 호수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해보기 위해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해 보았는데, 시설 관리,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레포츠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2일차 (A코스 및 옥상정원 방문)

1) 옥상정원

오전에는 세종정부청사의 옥상에 위치한 옥상 정원을 관람하였다. 옥상 정원과 공원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호수공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테마 별로 다양한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 옥상정원의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열심히 가꾼 모습들이 보였고, 이를 보며 공원과 정원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옥상정원의 화려하기도 하고 수수하기도 한 식물들을 보면서 힐링이 되기는 하지만 공원보다는 정원에서 눈이 바빠짐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공원에 굳이 화려한 시설을 들여놓는 것 보다는 들판과 휴식을 돕는 벤치 등 자연의 모습을 보존해 주는 것이 공원의 역할에 어울리는 것 같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곳에 방문함으로써 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2) 세종 호수공원 A코스

오후에는 전날 방문하지 못한 호수공원의 남은 지역들을 살펴보았다. 1일차와 같은 방향으로 도서관 앞에서부터 수질정화시설까지 외곽을 돌았다. 공원이 소개하는 A코스 와 비슷한 경로이다. 호수공원 사이트에서 대표 명소라 자랑하는 왕그네(전통놀이마당 위치)와 장남정(수변 전통공원 위치)를 방문하였다. 물꽃섬, 바람의 언덕에 앉아 주변 경관을 관찰하면서 시민들에게 명소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길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습지섬, 호수소풍숲, 야생초화원 등을 보고 시민들이 불편해 할 만한 요소가 없을지 조사하였다.



3. 탐구 결과

가. 세종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문제

우리는 세종 호수공원을 탐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대부분의 길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과 같이 경사진 길은 다리가 다친 사람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에 큰 부담이 된다.

둘째는 호수공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청사의 옥상공원과 다음 사진을 비교해보자. 옥상정원은 매우 깔끔하게 식물이 정리되어 있지만, 호수공원의 경우 관리가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잡초가 많이 자라 있다. 잔디밭을 잡초가 덮고 있었고 야생화 정원에도 잡초밖에 눈에 띄지 않았다. 또 호수 안에는 검정말과 같은 침수식물이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자라 있었다. 물이 깊은 부분에서도 거의 수면 높이까지 검정말이 자라 있었고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때는 노에 식물이 걸려 올라올 정도였다. 드문드문 물 근처의 검정말을 제거해 쌓아놓은 더미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식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예로 거미줄 문제가 있다. 난간에는 2미터당 하나 꼴로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나무, 덤불에도 거미줄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는 계단과 벤치에도 거미줄이 있기도 했다. 거미줄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미와 같은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셋째는 호수공원에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는 안내판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안내판을 살펴보면, 잔디밭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잔디를 밟지 말라는 말이나, 호수공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에는 그늘진 곳이 적어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인공 구조물도 부족했고 나무도 잎이 많고 풍성한 종류의 나무가 없었다.



나. 세종 호수공원의 안내판 문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안내판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종 호수공원 곳곳에 세종시의 소개나, 호수공원과의 관련성이 적은 안내판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30분 운동했을 시의 칼로리 소모량이 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는 호수공원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안내판이나, 담배, 술로 인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 등은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또한,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안내판 바로 옆에는 잔디를 밟고 지나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벤치가 위치해 있는 등의 모순점이 많았다.



4.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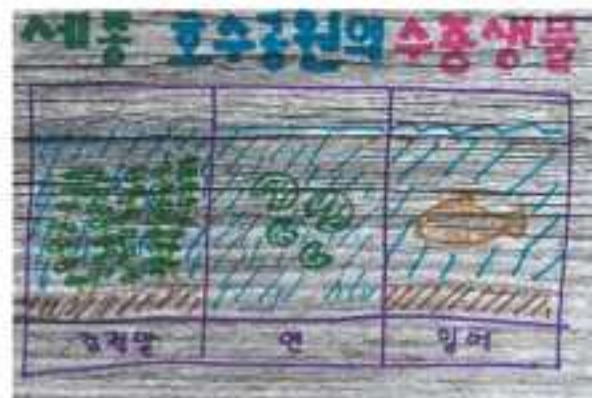
1) 새로운 안내판 제시

이와 같이 세종 호수공원 안내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안내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내판의 예시를 직접 제작해 보았다. 세종 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축제들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설치된다면 세종시민들과 세종시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축제를 홍보할 수 있고, 체험을 유도할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예시로 21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낙화 전통문화축제를 홍보하는

안내판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호수공원의 명소가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기는 했지만, 안내판의 지도상에서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탐사 과정에서 직접 이러한 명소(추억만들기 장소)들을 방문하였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가 많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지도를 나타내는 안내판 옆이나 호수공원 길 중간에 호수공원의 명소를 나타내는 안내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종 호수공원의 수중 생물을 알지 못하고 습지 섬이나 호수를 관찰하게 된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검정말, 연, 잉어를 중심으로 수중 생물을 안내판 상에 표현하여 보았고, 실제로 호수공원에 있는 더 많은 생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서식지 별로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표시된 생태 지도의 필요성도 느꼈다.



2) 제언

세종호수공원을 시민들이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줄이거나 개선하여 단정하고 정리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원에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아 할 것은 당연하다. 공원의 미관을 안 좋게 만드는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깔끔하고 정돈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공원에 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호수에서 자라는 검정말은 보기 싫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호수의 생태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제거를 하려고 한다 해도 9만 8천 평에 걸쳐 자라고 있는 수중식물을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연꽃공원과 같이 검정말이 제거되어야 마땅할 만한 곳, 수상 레포츠 구역과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곳에서는 침수 식물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세종호수공원은 앉아서 쉴 벤치는 넉넉히 있는 편이지만 그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햇볕으로부터 잠깐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활동 후기

▶ 박소호: 시험이 끝난 뒤 바로 진행되었던 3일 간의 인문 자연탐사는 나에게 세종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같이 탐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몰랐던 조원들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었으며, 학교를 벗어나 돌아다니며 세종시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호수 공원을 탐방하면서, 세종시가 세심한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교에서만 지내다가 다양한 곳을 방문하게 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학교에서 본 행사를 주최하게 된 이유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다른 조들과 다함께 옥상 정원을 방문한 것과 호수 공원의 바람의 언덕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즐거운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았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두 곳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

▶ 박수진: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인문자연탐사를 다녀오면서 후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3일 동안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보지는 못했지만 탐사를 계획하고, 함께 호수공원을 거닐기도 하며,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세종 호수공원으로 비교적 적은 범위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둘러보지 못한 호수공원만의 특징과 비밀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축제섬 부근이 아닌 반대편의 바람의 언덕 등의 한적한 곳은 도심 속의 시골, 휴식처 같은 느낌을 주었고, 인공호수 같지 않게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3일 동안 호수공원 탐사를 진행하고, 보고서와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바쁘고 힘들기는 했지만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생겼다.

▶ 박준수: 인문자연탐사기간 시험이 하루 전에 끝났는데 3일 만에 ppt, 포스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옥의 스케줄이 몸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팀의 인원수가 작년과 달리 5명으로 늘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식비를 사비로 지불해야 하여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인문 자연탐사 과정에서 호수공원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호수공원의 장단점을 찾아보는 과정은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다. 특히 카약체험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바람의 언덕위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던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 세종 호수공원의 안내판을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통해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 김태현: 시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공원을 거닐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어 좋았던 것 같다. 학교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멋진 공원도 이용하고 즐거운 수상 레포츠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인문자연탐사를 위해, 뭔가를 탐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니 아무 생각 없이 공원에 갈 때와 다른 관점에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신경쓰지 않았을 사소한 것들도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고, 공원을 개선할 수 있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었다. 또 이번 탐사를 통해 세종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한층 더 친숙해진 것 같다고 느낀다. 세종시에 살지만 세종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탐사를 통해 세종시의 기능, 모습,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 학교가 위치해 있는 이 특별한 도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좋았다.

▶ 노정훈: 세종시에서 생활한 것은 반년이 넘었지만, 학교 안에만 있다보니 세종시에 대해 아는 점은 거의 없었다.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다녀오면서 세종시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호수공원을 주제로 잡아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바람의 언덕이나 야생초화원은 조용하고 한적해 시골에 온것 같았다. 카약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호수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고민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6. 참고 문헌

- ▶ 세종호수공원 GUIDE MAP, <세종특별자치시>
- ▶ 행복도시 원수산 전월산 둘레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